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 사례 분석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 일부 보험회사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을 위해 2018년 1/4분기부터 IFRS 9을 적용함
 - 본고는 2018년 1/4분기에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한 4개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에 의한 실제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IFRS 9 적용으로 4개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2.9%에서 25.3%로 크게 증가함
 - 당기손익금융자산이 선행연구 결과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주로 파생결합증권)이 외에도 많은 금융자산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임

-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급증하면 손익변동성이 확대되지만, 보험회사는 IFRS 17 시행 이전까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여 손익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C, D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52%, 105% 감소함

- 2021년 IFRS 17 및 IFRS 90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의 손익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익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보험회사는 IFRS 9 적용으로 인한 수익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자산운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금리리스크와 자산운용수익률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각 사에 적합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현실적으로 상당수 보험회사는 ALM 강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비금리부자산 및 듀레이션이 짧은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은 축소하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장기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IFRS 9 적용에 의한 대손충당금 증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향후 대손충당금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분석배경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FRS 9은 원칙적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지만, 보험회사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사업 활동이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회사¹⁾의 경우 IFRS 17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IFRS 9 적용을 미룰 수 있음
- 보험회사는 IFRS 9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FRS 9 적용에 의해 발생 가능한 추가적 손익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을 IFRS 17 시행 전까지 적용할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을 위해 2018년 1/4분기부터 IFRS 9을 적용함

- 이들 대부분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함
 - 즉, IFRS 9을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과 IAS 39을 적용했다면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함

■ IFRS 9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침²⁾

- 첫째,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의 자산 비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 및 손익의 변동성이 달라짐
 - 기존 IAS 39은 금융자산을 주관적인 기준(보유목적, 의도와 능력 등)에 따라 네 가지³⁾로 분류했지만, IFRS 9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사업목적과 계약상 현금흐름)에 의해 금융자산을 세 가지⁴⁾로 분류함
- 둘째,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이 현행 발생손실모형에 의한 손상인식 방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전

1) ① 보험계약에서 분리한 저축요소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한 부채의 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에 비해 유의적이고, ② 보험 관련 부채의 총장부금액을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90% 이하지만 80%를 초과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야 함

2) 이 외에 IFRS 17 시행 이후 자산과 부채 간 측정 방식 불일치에 의한 자본 변동의 영향도 있음.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조영현·이혜은(2018)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환되는데,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함

■ 본고는 IFRS 9 적용 결과를 공시한 4개 보험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IFRS 9으로의 전환이 보험회사의 자본 및 손익변동성과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조영현·이혜은(2018)은 IFRS 9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하여 추정함
바 있음
- 분석대상 4개사는 IFRS 9 적용에 의한 영향을 2018년 1/4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상세하게 공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새로운 회계제도 적용의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음

2. 자산 분류 및 측정 기준 변화의 영향



■ IFRS 9 적용으로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⁵⁾ 측정 금융자산(이하 ‘당기손익금융자산’)이 금융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5.3%로 크게 증가함

- 반면, 상각후원가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하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비중의 경우 A, B사와 C사가 확연히 다르게 변화함
 - A, B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하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비중 변화가 거의 없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함
 - C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함
- 20% 내외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은 조영현·이혜은(2018)의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임
 - 조영현·이혜은(2018)은 2016년 말 기준 IFRS 9이 적용되고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이 모두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가정하에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생명보험회사는 9.8%, 손해보험회사는 14.5%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5)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임

〈표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준 변화

(단위: 억 원, %)

구분		IAS 39 (2017. 12. 31)		IFRS 9 (2018. 1. 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당기손익금융자산	A사	3,192	4.0	18,185	23.0
	B사	1,619	4.8	6,654	19.6
	C사	4,339	2.9	29,451	19.3
	D사	436	0.7	28,766	46.1
	합계	9,586	2.9	83,056	25.3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A사	34,942	44.0	21,870	27.7
	B사	15,357	45.5	10,323	30.4
	C사	95,738	63.0	110,041	72.1
	D사	26,446	42.3	8,095	13.0
	합계	172,483	52.6	150,329	45.8
상각후원가금융자산	A사	41,351	52.0	39,004	49.3
	B사	16,747	49.7	16,985	50.0
	C사	51,826	34.1	13,112	8.6
	D사	35,660	57.0	25,490	40.9
	합계	145,584	44.4	94,591	28.8

자료: 각 사 경영공시

■ 당기손익금융자산이 선행연구 결과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주로 파생결합증권)이 외에도 많은 금융자산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임

- 〈표 2〉는 현행 IAS 39 기준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규모인데, A사와 B사의 경우 그 규모가 IFRS 9의 당기손익금융자산 규모와 유사하지만 C사와 D사는 양자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은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됨

〈표 2〉 IAS 39과 IFRS 9의 금융자산 분류

(단위: 억 원)

구분	IAS 39				합계 (㉑+㉒)	IFRS 9
	당기손익인식 증권㉑	매도가능증권㉒				당기손익금융자산
		주식 및 출자금	수익증권	기타증권		
A사	3,192	236	8,249	3,603	15,280	18,185
B사	1,619	226	4,306	43	6,194	6,654
C사	4,339	1,069	10,905	516	16,829	29,451
D사	436	949	15,347	12	16,308	28,766

주: 2017년 12월 말 기준
자료: 각 사 경영공시

■ C사와 D사의 경우 상당 규모의 외화유가증권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음

- 외화유가증권 이 외에도 신종자본증권과 일부 특수채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됨

〈표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구성비

(단위: %)

구분	주식 및 출자금	신종자본증권	외화유가증권	수익증권	특수채	기타
C사	3.1	11.5	24.6	47.8	5.3	7.7
D사	2.3	-	30.4	54.8	-	12.6

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자산과 적용하지 않은 자산을 모두 포함함
자료: 각 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계산함

■ 한편, C사의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던 대출채권의 상당 부분을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것이 특징적임

-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된 대출채권은 대부분 PF 대출, 사모사채 등 기업대출임
- C사는 2017년 말 이전에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IFRS 17이 적용되어 보험부채가 시가평가 될 경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비중이 낮을수록 자본변동이 완화됨
- A, B사는 대부분의 대출채권 및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금융자산으로 분류함

- D사는 모든 대출채권을 상각후원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만기보유증권의 66.4%는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함

3. 자본 및 손익에 미친 영향



■ 전환 시점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에 의해 보험회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이 크게 변동함

- A, C, D사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에 의해 각각 -544, 589, -113억 원 규모의 자본 증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A, C, D사 자본규모의 각각 10.0%, 3.3%, 2.1%에 해당함

〈표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미친 영향

(단위: 억 원)

구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㉑ (2017. 12. 31)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	기타 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㉒ (2018. 1. 1)	증가분 (^㉒ - ^㉑)
A사	-275	-544	446	-373	-98
B사	-121	0	207	86	207
C사	2,043	589	11	2,643	600
D사	200	-113	18	105	-95

자료: 각 사 경영공시

■ 한편, 2018년 1/4분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의 영향은 C사와 D사만 공시하였는데, 양사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에 의해 영업이익이 각각 444억 원, 216억 원 증가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330억 원, 160억 원이 감소함

-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C, D사의 법인세비용이 각각 114억 원, 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C, D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52%, 105% 감소함
 - 이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의 평가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임

〈표 5〉 당기손익조정접근법에 의한 2018년 1/4분기 포괄손익계산서 변화

(단위: 억 원)

구분		영업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C사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전 [㉠]	429	126	301	-1,628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후 [㉢]	873	240	631	-1,958
	증가분(㉢-㉠)	444	114	330	-330
D사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전 [㉠]	-10	-3	-10	-4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후 [㉢]	206	53	150	-206
	증가분(㉢-㉠)	216	56	160	-160

자료: 각 사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두 회사의 손익변동성 크기는 선행연구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값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조영현 · 이해은(2018)은 2012~2016년도 기준 IFRS 9 적용 여부에 따른 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 변동성을 생보사 -38~+45%, 손보사 -21~+13%로 추정함⁶⁾
 - 이들의 추정치가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을 실제보다 낮게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IFRS 9 적용에 의한 산업 전체의 손익변동률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임

4. 대손충당금에 미친 영향



■ IFRS 9 적용으로 A, B, C 세 보험회사의 대손충당금은 평균 28% 증가함

- IAS 39에서는 설정하지 않던 채무증권의 대손충당금이 50억 원 설정되어 전체 증가분 109억 원의 46%를 차지함
 - IFRS 9은 정상 채권에 대해서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함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은 평균 48%가 증가함

6) 조영현 · 이해은(2018)의 〈그림 III-6〉과 〈그림 III-7〉의 수치를 바탕으로 변동률을 계산함

〈표 6〉 대손충당금의 변화

(단위: 억 원, %)

구분		전기 말 (2017. 12. 31)	당기 초 (2018. 1. 1)	증가분	증가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A사	67	114	47	70.1
	B사	10	18	8	80.0
	C사	50	56	6	12.0
	합계	127	188	61	4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	A사	0	4	4	-
	B사	0	2	2	-
	C사	0	44	44	-
	합계	0	50	50	-
기타	A사	83	83	0	0.0
	B사	0	2	2	-
	C사	179	176	-3	-1.7
	합계	262	261	-1	-0.4
합계	A사	150	200	50	33.3
	B사	10	22	12	120.0
	C사	229	276	47	20.5
	합계	389	498	109	28.0

주: D사는 전환시점의 대손충당금 변화에 대해 공시하지 않음
자료: 각 사 경영공시

■ 대손충당금의 증가율은 높지만, 대손충당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으며 회계기준 전환에 의한 일회성 사건이므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다만, 향후 보유 채무증권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함
 - IFRS 9 적용 시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할 경우 전체기간의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므로 대손충당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IFRS 9은 손상인식 시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경기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가 예상될 때 이를 반영할 경우 대손충당금이 증가하여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

5.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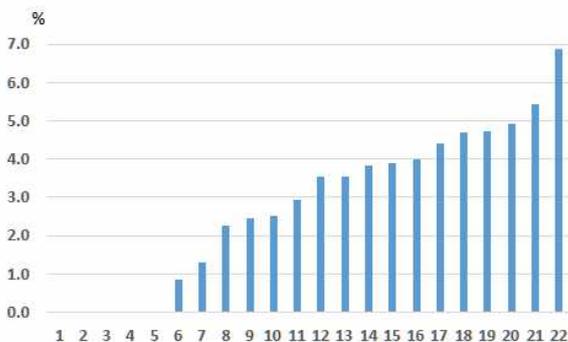
- 2021년 IFRS 17 및 IFRS 9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의 손익변동성이 선행연구의 전망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네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은 IFRS 9 적용 시 대폭 증가하여 25%에 이르며, 이로 인해 투자손익의 변동이 확대됨
 - 단, 4사는 중·소형사들로 산업 전체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
 - C, D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익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보험회사는 IFRS 9 적용에 의한 손익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자산운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손익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비금리부자산과 듀레이션이 짧은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 일반 채권 비중을 확대하면, 금리리스크도 축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손익변동성 완화 전략은 자산운용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신종자본증권, 수익증권, 특수채 등 당기손익금융자산은 일반 채권에 비해 위험 및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므로 이들의 비중 축소는 자산운용수익률을 낮출 수 있음
 -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금리리스크와 자산운용수익률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각 사에 적합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현실적으로 상당수 보험회사는 ALM 강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비금리부자산 및 듀레이션이 짧은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장기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한편, IFRS 9 적용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절대 금액 증가는 크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향후 대손충당금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IFRS 9은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손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 악화 및 보유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이 급증할 수 있음

- 약관대출 이외의 대출채권(이하 ‘일반대출채권’)의 신용위험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의 경우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림 1>과 <그림 2>는 회사별 일반대출채권의 RBC 기준 평균 신용위험계수를 나타냄 **ki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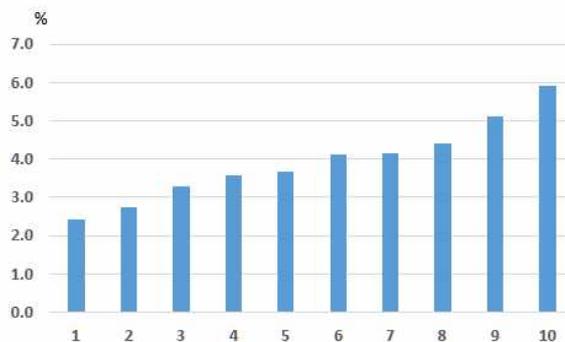
<그림 1> 생명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 신용위험계수



주: 2017년 말 기준, 추정 신용위험계수가 과도하게 높은 1개사는 제외

자료: 조영현(2018)⁷⁾에서 수정하여 인용

<그림 2> 손해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 신용위험계수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조영현(2018)에서 수정하여 인용

7) 조영현(2018),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심포지엄 발표자료